

☞ **캔서 리스크 스크린 + 알코올** 검사는 무엇인가요?

혈액 속에 존재하는 DNA에서 1급 발암 물질인 알코올의 분해 관련 유전요인과 주요 암종의 발생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유전요인을 모두 검사합니다.

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.

하지만, 질병의 최종진단은 아니므로 진단 및 치료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.



발암물질 1급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세계보건기구(WHO)에서 규정한 1급 발암 물질로 암 발생과 관련이 높습니다.¹⁾



유방암 15% 하루에 반잔 정도의 포도주를 마시는 여성의 경우 유방암 발병 위험이 15%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.²⁾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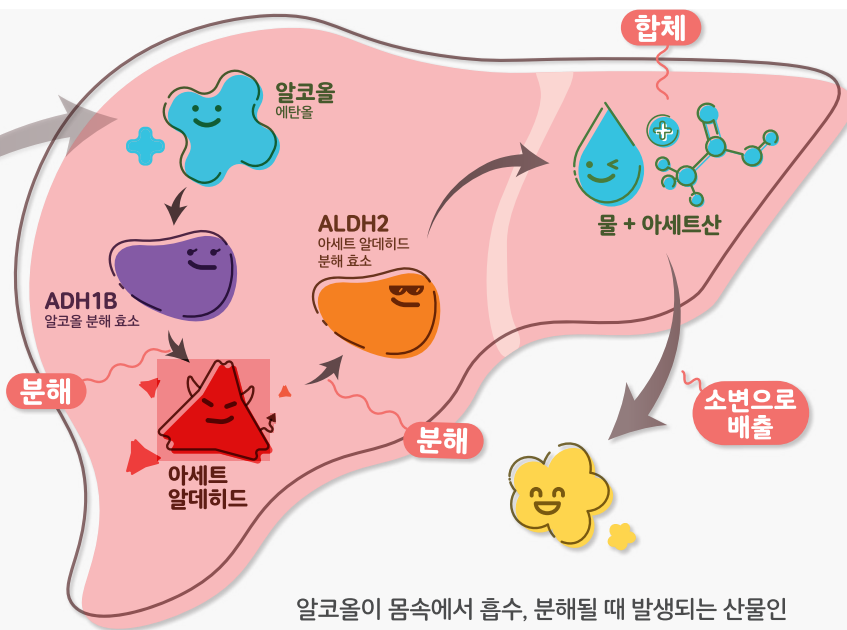
대장암 60%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소주 기준으로 7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60% 높습니다.²⁾



취약유전형 40% 동양인의 약 40%가 유전적으로 알코올 분해 능력이 낮은 암 취약 유전형입니다.³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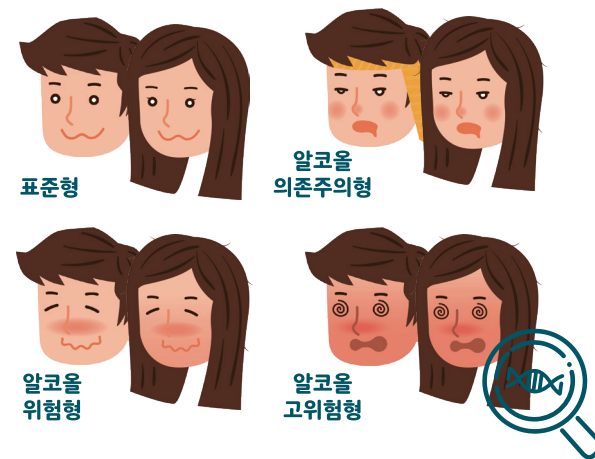
출처: 1) WHO (세계보건기구) 2) World Cancer Research Fund 3) Alcohol Res Health. 2007; 30(1): 22-27

술은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이고, 알코올을 잘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술을 계속 마시면 **암 발병 위험도가 높아집니다.**



알코올이 몸속에서 흡수, 분해될 때 발생하는 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는 두통 및 숙취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암을 발생시키는 독성물질입니다.

검사 항목		남성 12종	여성 13종
주요 암종	두경부암	●	●
	식도암	●	●
	위암	●	●
	대장암	●	●
	폐암	●	●
	간암	●	●
	갑상선암	●	●
	전립선암	●	-
	유방암	-	●
자궁경부암	-	●	
알코올 분해 능력	알코올 분해 능력	●	●
	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능력	●	●
암종별 발암 위험 요인 정보		●	●
암종별 건강 검진 가이드라인 정보		●	●



이제는 **Cancer RISK screen + 알코올** 검사로

자신의 알코올 관련 유전자형과 어떤 암 발생에 취약한지 확인하세요!